

응급처치 웹 사이트 모바일 버전 제작 보고서



First aid

CONTENTS

▷ 앱 사이트 분석

- 1) 기획의도
- 2) 사이트 분석
- 3) 컨셉도출
- 4) 시장조사

▷ 정보구조 설계

▷ 화면 분석

- 1) 스타일가이드
- 2) 와이어프레임

▷ 디자인 시안



First aid

응급처치 – 국제적십자사 연맹



기획의도

응급 처치란, 갑자기 발생한 외상이나 질환(이것을 응급외상, 응급질환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주로 발생한 장소, 또는 반송된 의료기관에서 최소한도의 치료를 행하는 것을 응급처치라고 한다.

2014년 부터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이 실시 되어도 대부분 영상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의 집중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처치 방법에 대하여 전달하는 것에 치명적인 제한이 발생한다.

현재, 국제 적십자사 연맹에서 개발한 응급처치 어플로 50여개의 국가/지역에서 일반적인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동영상과 대화형 퀴즈, 간단한 단계별 조언까지 함께 구성되어 있어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나 많은 안전 교육 사항에 대하여 검색해서 찾는 기능이 없고, 교육 내용이 개별적으로 있어 정리가 안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내용을 보며 구조요청을 보낼 수 있는 기능과 의료 용품에 대한 설명을 추가 하여 새로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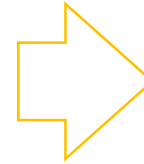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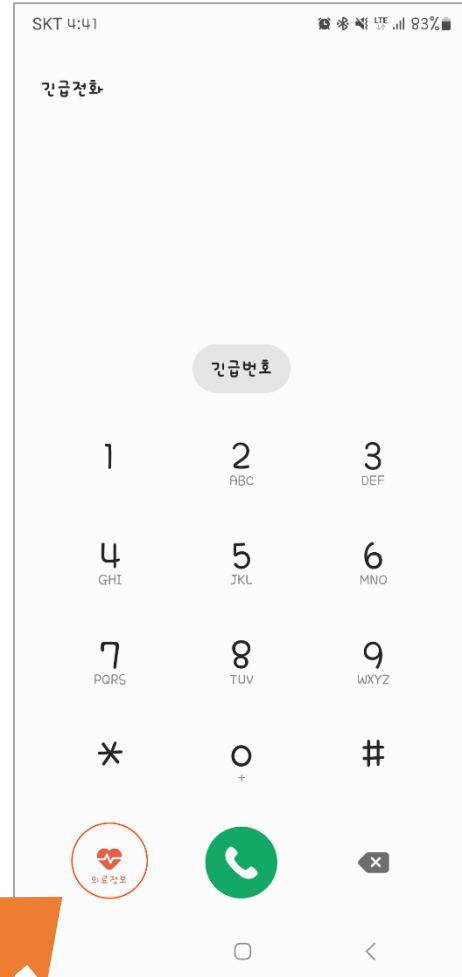
로고의 의미



적십자 로고는 적색 십자가와 흰색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색 십자가는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적십자 조직을 상징하고, 흰색 배경은 정의와 공감을 상징 한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항상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시는 긴급구조 119 로고를 합쳐 십자가 모형을 만들었고, 그 위에 생명을 의미하는 심박수 모형을 합쳤습니다.

사이트 분석

의료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만든
자체는 좋으나 확인 가능한 정보가
매우 적다.



의료 정보

성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신장 : _____

혈액형 : _____

병력사항 & 특이사항 : _____

복용 중인 약 : _____

이용하는 병원 : _____

보호자 : _____

보호자 연락처 : _____

취소

완료

시장조사(1)

학교 응급처치 교육, 실습 확대로 교육 실효성 높여야

소비자원,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실습 확대, 교재 지원 필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5/31 [13:43]

심정지 사고의 골든타임은 약 4~6분에 불과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최근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확대되고 「학교보건법」을 통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고교 재학 중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대학생 163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응급처치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급처치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조사대상의 11.7%만이 응급처치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 고교 재학 중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163명)에게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심폐소생 방법(가슴압박 및 인공호흡 등)'을 숙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73.6%(120명)였다.

그러나 '응급처치 순서(환자상태 확인→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4%(92명)였으며, 패드 부착 위치 등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24.5%(40명)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처치 순서와 심폐소생 방법 등 전체 응급처치 요령을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11.7%(19명)에 불과했다.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교육과 실습 확대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15개 시·도 교육청의 자료 협조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99%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음에도 처치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학생의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실습 확대, ▲응급처치 교육 효과의 증진을 위한 교재(수업 매뉴얼, 영상자료) 제작·배포를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 【후생신보】 - 68년의 역사 의료계 최초의 신문(<http://www.whosaeng.com/136474>)

- ∞ 학교 응급처치 교육의 문제점
- ∞ 응급처치 교육 교재의 필요성

시장조사(2)

초·중·고 때 배웠지만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심폐소생술, 대학 내 재교육 시스템 필요

기자명 : 정은아 기자 | 입력 2023.03.01 07:35 | 수정 2023.03.01 16:42

“심폐소생술을 익힌 대학 졸업생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30대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린 적이 있다. 위급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난달 26일 김정기 대구보건대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대학 내의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전국 고교 응급처치 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학 중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던 대학생 163명 중 ‘전체 응급처치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1.7%(19명)에 불과했다. 이론상으로 절차와 방법을 알고 있을 뿐 실제 상황에서 실행할 수 없는 대학생들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위급 상황에서 직접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대학생은 극히 일부라는 의미다. 현재 초·중·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 2에 의해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초·중·고 학교에서 실시되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미 초·중·고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대학생일지라도 재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의료계열 전공생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교육·의료계열 전공생들의 교육 환경은 다른 전공생들에 비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학과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열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전공 강의로 개설되기도 한다. 그 외 전공생들은 보건소나 소방안전체험관 등에 직접 신청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즉,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겠다는 자발적인 의지가 없는 대학생들은 관련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기까지 장벽이 존재한다.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각종 응급처치방법을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인 소방안전체험관은 전국에 13개뿐이다. 지역 보건소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심폐소생술 교육이 유료로 제공되는 곳도 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 42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2497)

- ∞ 응급처치 교육 및 안전 교육의 중요성
- ∞ 응급처치 교육 및 안전 교육의 접근에 대한 어려움

컨셉도출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접근 가능



응급처치의
기초지식을 쌓을
자료



자신감

어플만 설치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며,
시간과 공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한번 받는 교육이 아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는 교육 자료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

정보구조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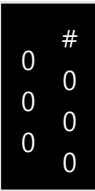
스타일 가이드

Lo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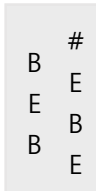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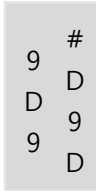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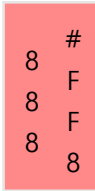


Col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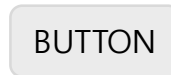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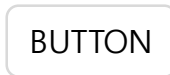
Main



Sub



Buttons



Font

국문

Noto Serif Korean Light
Noto Serif Korean Bold

영문

Jua Light
Jua Bold

Icon



H
a
m
b
u
r
g
e
r

m
e
n
u

- ☐ 응급 처치의 개요
- ☐ 응급처치용품
- ☒ 골든타임 응급처치 가이드
 - 자동재세동기(AED)
 - 심폐소생술(CPR)
- ☐ 기본 응급 처치술 가이드
- ☐ 상황별 응급처치 가이드
- ☐ 재난상황 시 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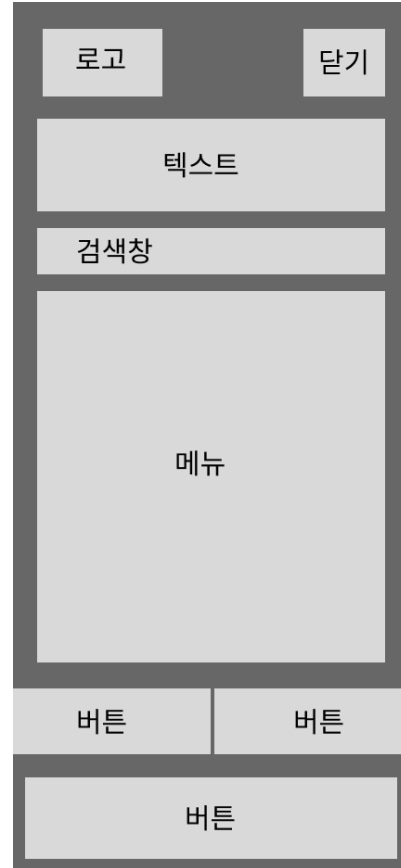
와 이 어 프 레 임



첫 페이지 와이어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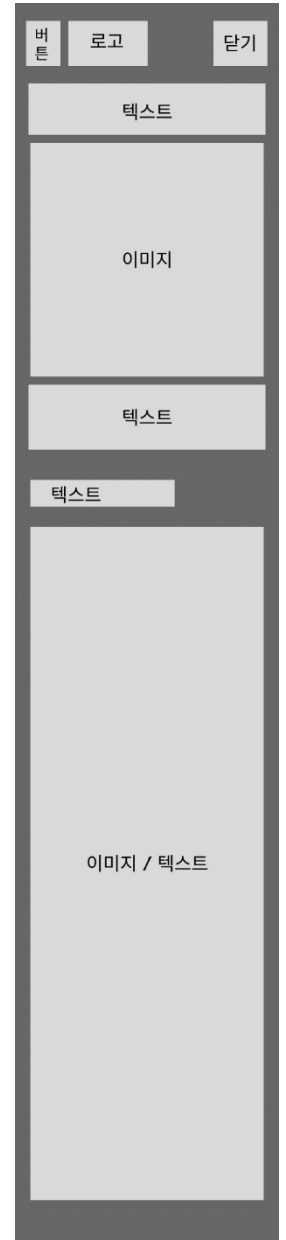
정보입력 와이어프레임



햄버거 메뉴
와이어프레임



메인 와이어프레임



처치술 가이드
와이어프레임

디자인 시안



첫 페이지 디자인

의료 정보

아이디 : 중복확인

비밀번호 :

비밀번호 확인 :

이름 :

휴대폰 :

생년월일 :

병력사항 & 특이사항 :

복용 중인 약 :

이용하는 병원 :

보호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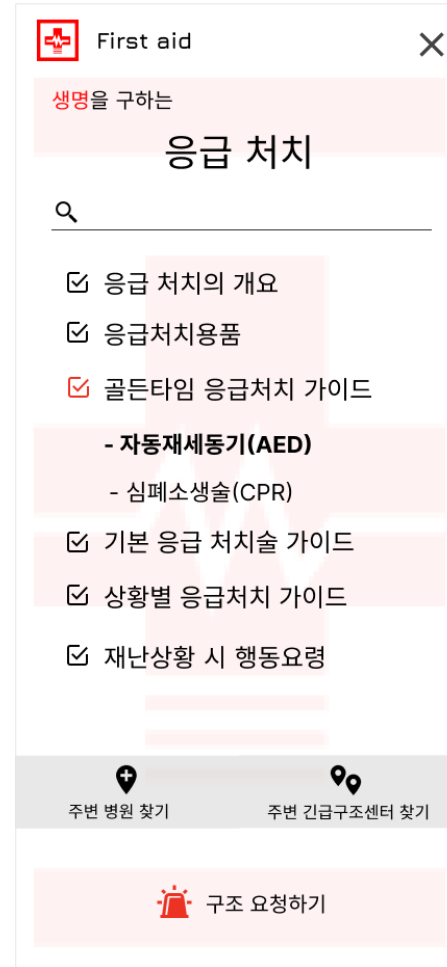
보호자 연락처 :

*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취소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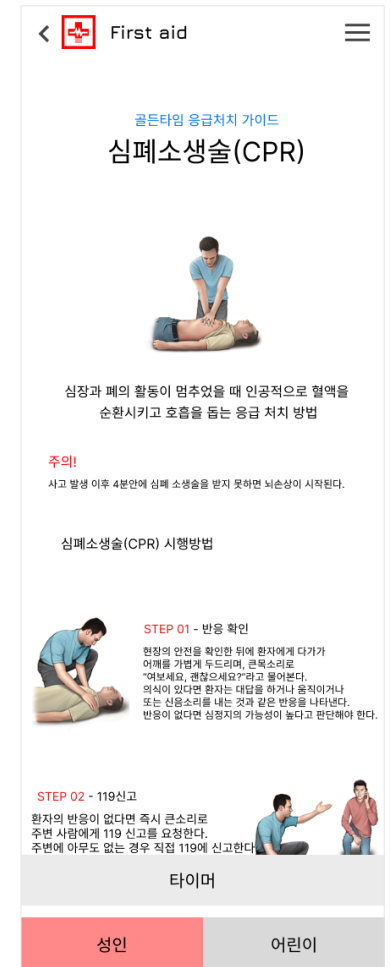
정보입력 디자인



햄버거 메뉴 디자인



메인 디자인



처치술 가이드 디자인

Thank You :)